

체질분류설문지(자기보고식)의 분석 연구

이의주* · 김종원** · 광창규* · 유정희* · 김규곤*** · 최선미****

Abstract

The Analysis of Self-checking Questionnaires for Identifying Sasangin

Lee Eui-Ju* · Kim Jong-Weon** · Kwak Chang-Kyu* · Yoo Jung-Hee* · Kim Kyu-Kon*** · Choi Sun-Mi****

*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

*** Dept. of Information Statistics, DongEui Univ.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rpose

This study checked the present conditions of looking into self-checking questionnaires for indentifying Sasangin. And then it will give key knowledges of developing new questionnaires.

Method

The 22 papers reported in journals from 1986 to 2003 were analysed on each purpose, method, subjects, and results.

Result

On questionnaires for indentifying Sasangin(I) have been written a paper of reliability, a paper of validation, and a paper of comparison of responses. On QSCC have been written 2 papers of validation, and 2 papers of comparative validation with other questionnaires. On QSCC II have been written a paper of reliability, 2 papers of validation, and 2 papers of comparison of responses, a paper of standardization, a paper of comparison of another questionnaires, and a paper of simple questionnaires. On QSCC III have been written a paper of validation, and a paper of comparison of responses, a paper of comparison of another questionnaires. On QSCC II + have been written 3 papers of reliability and a paper of comparison of another questionnaires.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were two. One was the subject problem, the size (2 papers ; 9%) and homeostasis age/sex (13 papers ; 59%). Qnother was the constitution problem, 4 constitutions (20 paper ; 90.9%) and identifying indicator (17 papers ; 77.3%).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Questionnaire, Analysis, Problem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동의대학교 정보통계학과
****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신저자 : 이의주 전화) 02-3457-9090 E-mail) sasangin@khu.ac.kr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994-5 강남경희한방병원 체질의학센터

본 연구는 2003년 한국한의학연구원·사상체질의학회 일반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

I. 서론

동무 이재마는 1893년에 『격치고』¹⁾를 저술하여 ‘事心身物’의 사상원리를 정립하고, 『동의수세보원』²⁻⁵⁾을 통해 그의 사상이론을 의학에 적용하여 사상의학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사상인의 생리·병리를 설명한 『동의수세보원·장부론』에서 사상이론에 근거한 ‘四焦論’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四焦論’은 내적으로 성정과 병증을 설명하고, 외적으로 체형기상과 용모사기를 규정하는 중요한 이론이다.

따라서 ‘四焦論’에 근거한 사상인변증내용은 (1) 외모【체형기상, 용모사기】 (2) 성정【성질재간, 향심】 (3) 證【완실무병, 대병, 중병, 체질병증】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사상인변증내용을 근거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은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이다. 이것은 〈性情〉과 〈證〉의 내용을 근거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설문조사하여 체질을 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사상변증론소고(고병희 등, 1985)⁶⁾에 이어 기본설문지를 기초하여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이 개발되었다. 개량화된 설문지 사상체질분류검사(QSCC)가 개발하여 1993년 김⁸⁾의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가 있었고, 1995년 이⁹⁾의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가 있었다. 이후 1996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가 개발되어 김¹⁰⁾의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표준화 연구’, 이¹¹⁾의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타당화 연구’가 보고 되었다. 이것이 현재 임상에서 실용화되어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QSCC II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설문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상체질설문지(QSCC III)가 개발되어 1999년 김¹²⁾의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기존설문지를 중심으로)’가 있었고, 한편으로 체질척도

를 개선하고 문항이 축소된 개정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QSCC II⁺)를 개발되어 2001년 김¹³⁾의 ‘개정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QSCC II⁺)에 대한 임상적 고찰’이 있었다.

따라서 논자는 이미 논문으로 발표된 체질분류를 위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조사하여, 체질분류설문지(자기보고식)의 유형별 연구현황 및 연구논문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향후 발전적 체질분류설문지(자기보고식)의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연구방법

사상체질을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지(1985년부터 2003년까지)에 대하여 총22편의 논문을 검색하고, 논문의 목적·분석방법·대상자·통계방법·연구결과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설문지별 연구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발전적 체질분류설문지(자기보고식)의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체질분류설문지(자기보고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a.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 ‘이하 I 설문지라 함’
- b. 사상체질분류검사: ‘이하 QSCC라 함’
- c.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 ‘이하 QSCC II라 함’
- d. 새로운 사상체질설문지: ‘이하 QSCC III라 함’
- e. 개정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 ‘이하 QSCC II⁺라 함’

III. 체질분류설문지(자기보고식)의 발달 과정

고⁶⁻⁷⁾는 1985년 ‘사상변증론 소고’에 이어 1987년 ‘사상체질변증 방법론 연구’에서 『동의수세보원』에 근거하여 기본설문지를 제작

하였다. 기본설문지의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체적 특징으로 외모(1-3번)·기질 및 성격(4-11번)·기타로 보행상태(12번)·발한여부(13번)·음식의 온냉기호(14번)·음식의 기호(15-16번)이다. 부분적 특징으로 생리적측면(면모·안·흉부·사지·피부·음성·대소변 17-26번)과 병리적 측면(체질증·체질병증 27-28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 대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기본설문지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상체질분포(소음인 32.69%·소양인 29.25%·태음인 25.22%·태양인 1.79%·기타 11.04%) 및 재현성(63.2%)을 보고한 바 있다.

I 설문지는 기질과 성격의 조사문항을 체질별로 묶어 측정기준의 모호함을 극복하고, 각 문항의 순서를 ①태음인·②소음인·③소양인·④태양인·⑤기타로 수정하고, 문항의 구성을 재편성한 것이다. I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구성되었다. (표 1)

표 1. I 설문지의 문항구성

육체적 특징	외모	1-3번 문항
	보행상태	4번 문항
	발한여부	5번 문항
	면모	6-7번 문항
	사관	8-9번 문항
	흉부	10번 문항
	사지	11번 문항
	피부	12번 문항
	음성	13-14번 문항
	대소변	15번 문항
정신적 특징	평소증상(생리적)	16번 문항
	평소증상(병리적)	17번 문항
	태음인의 기질 및 성격	18번 문항 (13개)
	소음인의 기질 및 성격	19번 문항 (13개)
	소양인의 기질 및 성격	20번 문항 (13개)
음식	태양인의 기질 및 성격	21번 문항 (14개)
	좋아하는 음식	22번 문항
	싫어하는 음식	23번 문항

김¹⁴⁾은 1989년 '사상체질감별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에서 computer에서 흐름도를 사용한 체질진단을 시도하였다. 김¹⁰⁾은 1993년 위의 연구에서 나온 『동의수세보원』과 『격치고』의 원문을 번역하고 문항을 선택하여 수차례에 걸쳐 예비연구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사상체질을 분류하는데 부적격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문항과 문항의 반응빈도가 매우 낮은 문항(빈응빈도가 10%미만인 문항)을 분류하였다. 이 결과를 한의사 4명, 임상심리학자 1명이 체질분류에 객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문항과 위의 작업에서 분류된 문항들을 가지고 문항별로 원문과 대조하면서 토론하여 문항을 다듬었다. 이론적 자기보고식조사의 단점인 피검자 태도에 의한 왜곡 및 허위반응 여부의 감지불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당시 피검자의 수검태도와 관련된 무작위 반응 및 동기 왜곡반응을 파악하는 척도를 첨가하여 좀 더 높은 신뢰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설문응답방식은 무작위 응답을 피하고자 O×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QSCC를 토대로 하여 이차적으로 경험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총24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각 체질척도에 속하는 문항에 대해 통계적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응답하지 않는 문항이나, 각 체질점수와 상관계수로 구해지는 문항적격도에 속하는 문항에 대해 통계적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응답하지 않는 문항이나, 각 척도 점수와 상관계수로 구해지는 문항적격도가 부정적이거나,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동의수세보원』 원문에는 없지만 통계적 검증 결과에서 전체 문항과의 상관을 구해 0.4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문항을 추가하고 다시 문항분석을 하여 문항적격도가 0.15% 이상이 되는 문항만을 선택해서 다른 체질을

목적으로 선정되었던 문항 중 오직 특정 체질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다른 집단과 다르게 응답한 문항을 그 문항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이탈반응으로 채점되는 문항으로 지정하여 특정 체질의 척도로 재분류시켰다. 그리고 QSCC 전체 문항 중 체격에 대한 문항과 신체부위의 병변에 대한 문항은 전체 설문지의 타당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제거하였다.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에서 기존의 신체적 요소로 주로 구분되었던 체질감별에 반하여 정신적, 심리적 요소를 포함하여 임상적으로 응용이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설문지형 자기보고식 검사를 제작하여 태음인 60.0%·소양인 63.6%·소음인 48.1%로 평균판별율 55.56%의 감별정확도를 보인바 이에 1996년 기존에 QSCC의 타당화 연구 고찰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여 사상체질분류검사Ⅱ(QSCCⅡ)를 제작하여 태음인 74.5%·소양인 60.6%·소음인 70.8%로 평균판별율 70.08%의 감별정확도를 보이는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QSCCⅡ는 선행된 연구 중 이⁹⁾의 '사상변증대용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와 김⁸⁾의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의 문항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상체질 전문 집단이 문항개발하여 1996년 QSCCⅡ를 완성하였다.

QSCCⅡ의 문항은 체질진단의 기준의 특성별로 신체적 요소에 관련된 문항·심성적 요소에 관련된 문항과 體質素證과 體質病證에 관련된 문항으로 나눌 수 있다. 사상인의 신체적 요소는 정적 관찰 방법인 체형기상과 동적 관찰 방법인 용모사기로 세분되어지고, 심적 요소는 다시 性質과 才幹·恒心·心慾 등으로 세분되다. 이에 따라 QSCCⅡ의 문항을 나누어보며 신체적 요소에 관한 8문항·심성적 요소에 관한 80문항·體質素證과 體質病證에 관한 24문항 및 9개의 동기왜곡 문항

으로 총1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

표 2. QSCCⅡ의 문항구성

신체적 요소	체형기상 (정적 관찰)	1, 2, 3, 4, 5, 6 번 문항
	용모사기 (동적 관찰)	9, 12번 문항
성질재간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40, 41, 42, 43, 44, 45, 46, 47, 61, 62, 63, 64, 65, 68, 69, 70, 71, 72, 93, 101번 문항
	심성적 요소	
향심		15,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6, 88, 89, 115번 문항
	심욕	13, 14, 74, 75, 76, 77, 78, 79, 80, 81, 83, 84, 85, 86, 90, 91, 92, 94, 95, 96, 97, 98, 99, 100 번 문항
병증	땀	10, 106, 107, 110, 120, 121번 문항
	희은랭	7, 8번 문항
	소화상태	102, 111, 114번 문항
	대변	103, 104, 105, 109번 문항
	소변	108번 문항
	피부상태	11번 문항
	안구증상	117, 118번 문항
	흉격병증	115, 119번 문항
	허로	112, 113, 116번 문항
	동기왜곡문항	16, 32, 39, 60, 66, 67, 73, 82, 87번 문항

QSCCⅢ는 1999년 김¹²⁾의 의해 총 692명(건강검진환자 575명과 외래환자 117명) 중 I 설문지와 QSCCⅡ의 설문조사결과와 전문의 체질진단 결과가 모두 일치한 250명중에서 설문지 내용이 비교적 충실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통계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QSCCⅢ를 제작하였다. 문항분석을 통해 P<0.01이하인 문항은 I 설문지 33문항, QSCCⅡ 40문항이며, '설문지를 통한 사상체질의 임상적 분류방안 연구'와 '체질진단 분류에 따른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Ⅱ'에서 유의성이 있는 85문항을 추가하여 총 19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3)

표 3. QSCCⅢ의 문항구성

체격과 체형	외모 (안색과 태도)	습관과 성격	생리·병리상태	평소 건강할 때 느끼는 증상
7	7	3	3	4
식사 습관	평소 잘 나타는 증세	일처리와 장단점	대인 관계	평소마음
3	14	6	7	5
감정 특성	행동 특성	성격		
1	10	15		
구성	소양인 문항	태음인 문항	소음인 문항	총문항
문항수	84	70	87	241

QSCCⅡ⁺는 김¹⁵⁾·장¹⁶⁾·나¹⁷⁾의 연구에서 유의하다고 검증된 항목을 위주로 재구성된 설문지이다. 기존 QSCCⅡ가 121문항인 것에 비해 QSCCⅡ⁺는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

QSCCⅡ⁺의 문항은 표 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1번 문항에서 12번 문항까지는 선다형 문항이고, 13번부터 54번까지는 일처리와 장단점·대인관계·평소의 마음·문제점·감정특성·행동특성·몸상태 등으로 구분하여 그렇다(O)·아니다(X)로 응답하는 문항이다.

표 4. QSCCⅡ와 QSCCⅡ⁺의 체질척도 분포

	태양 척도	소양 척도	태음 척도	소음 척도	총문항수
QSCCⅡ	24	39	38	51	152
QSCCⅡ ⁺	16	19	17	35	87
기존항목	16	12	14	30	72
추가된 항목	0	7	3	5	15

기존의 항목중 유의성이 있다고 보고된 소양인 12항목·태음인 14항목·소음인 30항목이 포함되고, 새로 추가된 항목으로는 소양인항목에서는 기존 85번인 태음인 항목, 17번 34번인 태양인 항목 2개와 체질 항목이 아니던 항목이 4개로 모두 7개이며, 태음인 항목에서는 22번인 소음인 항목과 12번 19번인 소양인 항목 2개로 모두 3개가 소음인에서는 태음인 항목 1개 태양인 항목 1개 체

질 항목이 아니던 항목3개가 추가 되었다. 태양인 항목은 태양인이 회소한 관계로 그 자료가 부족하여 다른 체질 척도와 중복되는 12개 항목에 기존의 설문지에서 다른 체질의 응답이 적으면서 문헌적으로 유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4문항을 추가하여 16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들 항목 중 태양인 항목은 유의성 연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제외한 3 체질의 척도만을 제시하였다. 이들 항목중 두 체질의 체질항목으로 보고된 것이 9문항이며 6개의 항목이 세 체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들 문항은 QSCCⅡ와 문항구성 요소는 같다. 이에 따라 QSCCⅡ⁺의 문항을 나누어보며 신체적 요소에 관한 8문항·심성적 요소에 관한 36문항·體質素證과 體質病證에 관한 6문항으로 총5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보면 대변·소변·피부상태·안구상태·흉격병증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항목들은 전문의사와 환자 사이의 개념이나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설문지 상에서 한 두 항목으로 표현하기에는 힘들며, 전문의사의 직접적 교류를 통해서 정확히 정의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5)

표 5. QSCCⅡ⁺의 문항구성

신체적 요소	체형기상 (정적 관찰)	1,2,3,4,5,6
	용모사기 (동적 관찰)	9,11
심성적 요소	성질재간	13,14,15,16,17,18,19,20,21,22,23,24,25,27,35,38,39,40,47
	항심	26,28,29,30,31,32,33,34,36,37,44,46
	심욕	41,42,43,45,48
	땀	50
병증	회은랭	7,8
	소화상태	49,51,54
	대변	None
	소변	None
	피부상태	None
	안구증상	None
흉격병증	흉격병증	None
	허로	52,53

IV. 연구결과

체질분류설문지(자기보고식)의 연구현황과 문제점은 (표 6)과 같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체질설문지의 연구현황 및 문제점

	I 설문지	QSCC	QSCC II	QSCC III	QSCC II*	합 계
진 단 신뢰도	김달래 (1994) SHCI		박혜선 (2002) C		김상복 (2000) CI 장현복 (2001) CI 나태운 (2001) CI	5(22.7%)
타당화	이의주 (1995) HC	김선호 (1993) HCI 노성호 (1996) HC	이정찬 (1996) CI 이상규 (2003)	김태균 (2000) HCI		6(27.3%)
준 거 타당화		이정찬 (1993) HCI 조용태 (1994) HCI				2(9.1%)
분 향 분석	박은경 (2000) HCI		박은경 (2000) HCI 김태연 (2003)	김영우 (1999) HCI		4(18.2%)
표준화			김선호 (1996) CI			1(4.6%)
설문지간 비교			박성식 (1999) CI	김영우 (1998)S HCI	김상복 (2001) HCI	3(13.6%)
간편화			박은경 (2001) HCI			1(4.6%)
합 계	3(13.6%)	4(18.2%)	8(36.7%)	3(13.6%)	4(18.2%)	22(100%)

a : year

* : subject problem

【 S(size), H(homeostasis age/sex) 】

constitution problem

【 C(4 constitution), I(indicator ex. drug)】

1. I 설문지의 연구현황 및 연구문제점

고⁷⁾는 1987년 '사상체질변증 방법론연구'에서 동의수세보원을 근거로 사상인의 변증방

법으로 육체적 체형과 정신적 기질을 포괄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식을 도입하여 기본설문지를 개발한 뒤, 이것을 수정 보완하여 I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김¹⁸⁾은 1994년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 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에서 I 설문지와 전문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76.67%의 진단정확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에서 sample size는 총65명이며, sex는 남자 62명과 여자 3명이며, jab은 학생으로 성별·연령별 집단간 동질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해 검증된 체질이 아니며, 태양인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⁹⁾는 1995년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 (I)의 타당화 연구'에서 I 설문지의 타당화를 위해 준거타당도검증과 진단정확률을 높이기 위한 분석을 위해 문항분석,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체질별 척도에서 산출된 체질점수를 절대적 크기로 체질집단함으로써 대부분 소음인으로 진단되는 것을 지적하고, 판별분석으로 새로운 판별식에 의한 57.93%의 진단정확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에서 size는 328명이지만 성별·연령별 집단간 동질성에 관한 분석이 빠져 있다. 또한 체질에서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한약물로 검증된 체질이나 태양인은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박¹⁹⁾은 2000년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연구'에서 I 설문지의 문항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총76문항 중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25문항이며, 세 체질간 차이있는 15문항으로 1차적 설문지로 먼저 선택될 수 있고, 두 체질간 차이있는 36문항으로 재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에서 size는 200명이며, sex는 남자 145명·여자 55명으로 성별·연령별 집단간 동질성에 관한 분석이 빠져 있다. 또한 체질에서 학생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약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양인은 없는 문제점이 있다.

2. QSCC의 연구현황 및 연구문제점

김⁸⁾은 1993년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에서 사상척도의 내적일치도와 재검사신뢰도 및 준거타당도 검증 및 진단 정확도를 위해 문항분석, 상관분석,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판별식에 의한 55.56%의 진단 정확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에서 size는 241명이며, 남자 147명·여자 94명으로 성별·연령별 집단간 동질성에 관한 분석이 빠져 있다. 또한 체질에서 환자 105명·학생 134명으로 한약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양인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²⁰⁾는 1993년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준거타당화 연구-성격요인검사 16PF와의 비교분석-'에서 체질척도와 16PF척도를 비교 분석하고, 체질과 16PF척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판별분석을 실시하여 '첫째, 태양척도와 소양척도는 외향적 반응을 나타내며 태음척도와 소음척도는 내향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둘째, 태양집단은 외향적·자기애적 성격특징을 가지고, 소양집단은 두드러진 외향적, 태음집단은 내형적 및 감추어진 불안감, 소음집단은 내향적 및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셋째, QSCC와 16PF를 같이 응용하면 진단정확도를 고무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은 김의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와 동일하다.

조²¹⁾는 1994년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준거타당화 연구-성격요인16PF, 성격유형 MBTI와의 비교분석-'에서 체질척도와 16PF척도·MBTI척도를 비교분석하고, 체질과 16PF척도·MBTI척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첫째, 사상척도와 성격요인척도를 비교한 결과로 태양척도는 외향요인·독립요인·독창성요인이 높으며, 불안요

인·초자아요인이 낮게 나타나며, 소양척도는 불안요인·독립요인·독창성요인이 높으며, 강정성요인·초자아요인이 낮게 나타나며, 태음척도는 불안요인이 높게 나타나며, 소음척도는 불안요인·초자아요인이 높으며, 독립요인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사상척도와 성격유형척도를 비교한 결과로 태양척도는 외향형·인식형·직관형이며, 소양척도는 인식형·직관형이며, 태음척도는 감각형이며, 소음척도는 내향형·판단형이다. 셋째, QSCC와 16PF·MBTI를 함께 사용하여 진단정확도를 제고해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에서 size는 513명이며, 남자 333명·여자 180명으로 성별·연령별 집단간 동질성에 관한 분석이 빠져 있다. 또한 체질에서 환자와 학생으로 한약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양인은 없는 문제점이 있다.

노²²⁾는 1996년 '사상체질분류조사의 타당화 방안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에서 QSCC의 타당화를 위해 준거타당도검증과 진단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을 위해 문항분석,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체질척도 및 설문지의 내적일치도를 검증하고, 새로운 판별식에 의한 54.91%의 진단정확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에서 size는 602명이며 남자 336명 여자 263명으로 성별·연령별 집단간 동질성에 관한 분석이 빠져 있다. 또한 체질에서 건강검진환자를 중심으로 한약물로 검증되지 않은 체질이며 태양인은 없는 문제점이 있다.

3. QSCC II의 연구현황 및 문제점

김¹⁰⁾은 1996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표준화 연구'에서 QSCC II의 계층별 표준화를 위해 검사지의 신뢰도 검증 및 진단 정확도를 살펴 보았는데 내적일치도분석, 타당도분석,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QSCC II를 개발하고 판별식에 의해 진단정확률 70.08%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준거집단의 size가 274명이며 남자 147명·여자 114명으로 size가

적고 성별·연령별 집단간 동질성에 관한 분석이 빠져 있다. 또한 체질에서 건강검진환자 및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한약물로 검증되지 않은 자도 포함되었으며 태양인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¹¹⁾는 1996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에 대한 타당화 연구-각 체질집단의 집단별 Profile분석을 중심으로-에서 판별분석·다변인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첫째, 설문지의 타당도(70.08%)를 입증하고 둘째, 체질집단의 전체 프로파일 특성비교에서 각 체질별로 해당척도에 대한 반응은 모든 척도에서 일정하게 상승되어 체질변증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셋째 자기표현의 정도를 중심으로 관찰해 본 전체 프로파일의 분석에서 소양집단이 가장 뚜렷한 선명성을 보였고 소음집단이 가장 취약하며 태음집단은 이중적 속성을 나타냈다. 넷째, 소양인의 이탈집단은 소양집단의 일반 속성과 달리 현저하게 소극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소음척도에서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였고, 태음인의 이탈집단은 점수분포가 매우 낮은 소극적 양상을 보였으며 태음집단의 특성인 태양-태음 동반상승과는 반대로 태양척도에서 점수가 급락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소음인의 이탈집단은 소양집단의 프로파일 형태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 소음집단 특유의 소극적이고 표현의 취약한 특성이 대부분 희석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준거집단 및 체질의 문제는 위와 같다.

박²³⁾은 1999년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의 일치도 분석'에서 I 설문지, QSCC, QSCC II의 설문지간 체질분포 특성과 설문지간의 판정일치도를 비교분석을 위해 설문지간의 일치도 판정은 Kappa 치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I 설문지를 판별식에 의한 결과와 QSCC II의 결과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체질진단에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Kappa치는 0.337로 55.6%의 일치율을 보였다. 그러나 대상자에서 size는 1595명이며, sex는 남자 967명·여자 628명이며, 20세이하 35%·20대

61.6%로 전체 연령에 고루 조사되지 못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태양인이 배제되었다.

박²⁴⁾은 2000년 'QSCC II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연구'에서 QSCC II의 문항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55문항이며, 세 체질간 차이있는 15문항으로 1차적 설문지로 먼저 선택될 수 있고, 두 체질간 차이 있는 51문항으로 재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에서 size는 200명이며, sex는 남자 145명·여자 55명으로 성별·연령별 집단간 동질성에 관한 분석이 빠져 있다. 또한 체질에서 학생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약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양인은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박²⁵⁾은 2001년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체질진단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16문항을 선정한 뒤 의사나무결정나무법을 이용하여 체질 변별에 유의한 문항과 경로를 밝힘으로서 효율적인 진단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에서 size는 200명이며, sex는 남자 145명·여자 55명으로 성별·연령별 집단간 동질성에 관한 분석이 빠져 있다. 또한 체질에서 학생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약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양인은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박²⁶⁾은 2002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인과 QSCC II의 일치수는 51%이며, 총121문항중 유의수준 $p < 0.2$ 는 36문항이며, 7문항을 수량화방법을 이용한 분석에서 Kappa의 값이 0.466으로 일치도가 68.2%이었다. 그러나 대상자에서 size는 215명이며, sex는 남자 110명·여자 105명으로 성별·연령별 집단간 동질성에 관한 분석이 빠져 있다. 또한 체질에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약물로 검증되었으나 태양인은 없는 문제점이 있다.

김²⁷⁾은 2003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upgrade 연구(I)'에서 문항분석을 통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57문항을 제시하고, 체질판단에 유의미한 문항으로 태양인 18문항·소양인 40문항·태음인 41문항·소음인 32문항이며, 태양인을 변별할 문항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²⁸⁾는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upgrade 연구(Ⅱ)'에서 태양인을 포함한 새로운 판별식을 통하여 67.3%의 진단정확률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자에서 size는 537명이며, sex는 남자 270명·여자 265명으로 성별·연령별 집단간 동질성에 관한 분석이 있다. 또한 체질에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약물로 검증되었으며 태양인 13명이 포함되어 있다.

4. QSCCⅢ의 연구현황 및 문제점

김²⁹⁾은 1998년 '설문지를 통한 사상체질의 임상적 분류방안 연구'에서 QSCCⅡ와 임상 설문지(부산임상의)를 비교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설문문항에서 외모와 성격외에 임상 증상(생리적, 병리적)에 관한 체질별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상자에서 size는 27명으로 남자 8명·여자 19명으로 size가 너무 작고, 성별·연령별 집단간 동질이 없다. 또한 체질에서 입원환자 중심으로 한약물로 검증되었으나 태양인은 없는 문제점이 있다.

김¹²⁾은 1999년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기존설문지를 중심으로)'에서 총 692명중 의사진단, I 설문지와 QSCCⅡ가 모두 일치한 200명의 설문문항을 분석하여 QSCCⅢ를 개발하고, 임상환자 75명의 체질 진단에 있어 73.33%의 진단정확률을 보이나 태양인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대상자에서 size는 200명이며 남자 106명·여자 94명으로 성별·연령별 집단간 동질성 분석이 없다. 또한 체질에서 건강검진환자와 외래환자 중심으로 한약물로 검증된 환자는 75명이며 태양인은 없는 문제점이 있다.

김²⁹⁾은 2000년 '새로운 사상체질설문지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QSCCⅢ의 임

상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아홉가지 판별식을 만들어 체질을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판별식(I-2)은 한약물 검증된 환자 106명에게 적용한 결과 소음인 60.53%·태음인 52.78%·소양인 48.39%로 평균진단정확률이 53.9%이었다. 그러나 대상자에서 size는 198명(일반인 학생)과 106명(한약물로 검증된 환자)로 총304명이며 성별·연령별 집단간 동질성 분석이 없다. 또한 체질에서 한약물로 검증된 환자는 106명이며 태양인 1명으로 통계적 분석에 크게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5. QSCCⅡ+의 연구현황 및 문제점

김¹⁴⁾은 2000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의한 소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에서 소음인으로 진단된 336명과 다른 체질로 진단된 422명을 대상으로 QSCCⅡ의 소음인 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기존 분석환자수 50명에서 새로운 분석환자수 336명으로, 기존 소음척도 30문항에서 새로운 소음척도 35문항으로, 기존 소음척도 신뢰도 0.6319에서 새로운 소음척도 0.8011로, 기존 진단정확률 55.4%에서 새로운 진단정확률 64.3%로 각각 조정하였다. 그러나 소음척도의 기준(체질간 10%차이 있는 문항)이 모호하며, 또한 체질에서 건강검진환자를 중심으로 한약물로 검증되지 못한 대상자이며, 태양인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장¹⁵⁾은 2001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의한 태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에서 태음인으로 진단된 204명과 다른 체질로 진단된 554명을 대상으로 QSCCⅡ의 태음인 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기존 분석환자수 98명에서 새로운 분석환자수 204명으로, 기존 태음척도 14문항에서 새로운 태음척도 17문항으로, 기존 태음척도 신뢰도 0.5922에서 새로운 태음척도 0.5983로, 기존 진단정확률 62.3%에서 새로운 진단

정확률 60.3%로 각각 조정하였다. 그러나 태음척도의 기준(체질간 10%차이 있는 문항)이 모호하며, 또한 체질에서 건강검진환자를 중심으로 한약물로 검증되지 못한 대상자이며, 태양인은 없는 문제점이 있다.

나¹⁶⁾는 2001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에 의한 소양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에서 소양인으로 진단된 218명과 다른 체질로 진단된 540명을 대상으로 QSCC II의 소양인 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기존 분석환자수 117명에서 새로운 분석환자수 218명으로, 기존 소양척도 39문항에서 새로운 소양척도 19문항으로, 기존 소양척도 신뢰도 0.596에서 새로운 소양척도 0.6771로, 기존 진단정확률 60.0%에서 새로운 진단정확률 68.8%로 각각 조정하였다. 그러나 소양척도의 기준(체질간 10%차이 있는 문항)이 모호하며, 또한 체질에서 건강검진환자를 중심으로 한약물로 검증되지 못한 대상자이며, 태양인은 없는 문제점이 있다.

김¹³⁾은 2001년 '개정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 II(QSCC II⁺)에 대한 임상적 고찰'에서 QSCC II⁺의 재구성에 대한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QSCC II 및 문항의 응답율을 비교 조사하기 위해 두 설문지에 모두 응답한 57명을 대상으로 두 설문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QSCC II와 QSCC II⁺는 피검자가 동일 문항에 대해 유의하게 동일하게 응답하고, QSCC II⁺에서 소음항목과 태음항목은 척도로서 타당하나 소양척도는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에서 size는 57이며, 설문지간 일치도에 따른 통계적 검증이 없다. 또한 태양인이 배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IV. 고찰 및 결론

고⁶⁻⁷⁾는 1985년 '사상변증론 소고'에 이어 1987년 '사상체질변증 방법론 연구'에서 『동의수세보원』에 근거하여 기본설문지를 제작

하였다.

I 설문지는 기질과 성격의 조사문항을 체질별로 묶어 측정기준의 모호함을 극복하고, 각 문항의 순서를 ①태음인·②소음인·③소양인·④태양인·⑤기타로 수정하고, 문항의 구성을 재편성한 것이다. I 설문지는 1994년 김¹⁸⁾의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에서 진단신뢰도(76.67%)를 검증하였으나 문제점으로 대상자의 크기·성별과 나이의 동질성과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1995년 이⁹⁾는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에서 I 설문지의 타당화를 분석하였으나 문제점으로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의 동질성과 체질에서 3체질이 지적된다. 2000년 박¹⁹⁾은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 연구'에서 체질간 문항분석하였으나 문제점으로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의 동질성과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QSCC는 1989년 김¹⁴⁾의 '사상체질감별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의 분석자료 및 『동의수세보원』과 『격치고』의 원문을 번역하여 제작되었다. 1993년 김⁸⁾의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에서 QSCC의 타당화를 분석하였으나 문제점으로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의 동질성과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1993년 이²⁰⁾의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준거타당화 연구-성격요인검사 16PF와의 비교분석-'에서 QSCC에 대한 16PF의 준거타당성을 분석하였으나 문제점으로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의 동질성과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1994년 조²¹⁾의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준거타당화 연구-성격요인16PF, 성격유형MBTI와의 비교분석-'에서 QSCC에 대한 16PF의 준거타당성을 분석하였으나 문제점으로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의 동질성과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1996년 노²²⁾의 '사상체질분류조사의

타당화 방안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에서 QSCC의 타당화를 분석하였으나 문제점으로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의 동질성과 체질에서 3체질이 지적된다.

QSCCⅡ는 선행된 연구 중 이⁹⁾의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와 김⁸⁾의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의 문항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상체질 전문집단이 문항개발하여 1996년 QSCCⅡ를 완성하였다.

1996년 김¹⁰⁾의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표준화 연구'에서 QSCCⅡ의 계층별 표준화분석을 하였으나 문제점으로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1996년 이¹¹⁾의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대한 타당화 연구-각 체질집단의 집단별 Profile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체질별 profile 분석을 중심으로 QSCCⅡ의 타당화 분석하였으나 문제점으로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1999년 박²³⁾의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의 일치도 분석'에서 I 설문지, QSCC, QSCCⅡ의 설문지간 체질분포 특성과 설문지간의 판정일치도를 비교분석하였으나 문제점으로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2000년 박²⁴⁾의 'QSCCⅡ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연구'에서 QSCCⅡ의 문항분석으로 체질간 응답차이를 분석하였으나 문제점으로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의 동질성과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2001년 박²⁵⁾의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체질진단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16문항을 선정한 뒤 의사나무결정나무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진단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문제점으로 대상자의 크기·성별과 나이의 동질성과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2002년 박²⁶⁾의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인과 QSCCⅡ의 일치도와 유의한 문항(7문항)

으로 수량화방법을 이용한 체질분류를 제시하였으나 문제점으로 체질에서 3체질이 지적된다. 2003년 김²⁷⁾의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upgrade 연구(I)'에서 문항분석을 통해 체질별 반응차이를 분석하였다. 2003년 이²⁸⁾의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upgrade 연구(II)'에서 태양인을 포함한 새로운 판별식을 통하여 67.3%의 진단정확률을 제시하였다.

QSCCⅢ는 1999년 김¹²⁾의 의해 총 692명(건강검진환자 575명과 외래환자 117명) 중 I 설문지와 QSCCⅡ의 설문조사결과와 전문의 체질진단 결과가 모두 일치한 250명중에서 설문지 내용이 비교적 충실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통계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QSCCⅢ를 제작되었다. 1998년 김²⁹⁾의 '설문지를 통한 사상체질의 임상적 분류방안 연구'에서 QSCCⅡ와 임상설문지(부산임상의)를 비교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문제점으로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의 동질성과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1999년 김¹²⁾의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기존설문지를 중심으로)'에서 총692명중 의사진단, I 설문지와 QSCCⅡ가 모두 일치한 200명의 설문문항을 분석하여 QSCCⅢ를 개발하고, 임상환자 75명의 체질진단에 있어 73.33%의 진단정확률을 분석하였으나 문제점으로 대상자의 크기·성별과 나이의 동질성과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2000년 김³⁰⁾의 '새로운 사상체질설문지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QSCCⅢ의 임상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아홉가지 판별식을 만들어 체질을 분석하여 가장 의미있는 판별식(I-2)은 한약물 검증된 환자 106명에게 적용한 결과 소음인 60.53%·태음인 52.78%·소양인 48.39%로 평균진단정확률이 53.9%이었다. 문제점으로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의 동질성과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QSCCⅡ⁺는 김¹⁵⁾·장¹⁶⁾·나¹⁷⁾의 연구에

서 유의하다고 검증된 항목을 위주로 재구성된 설문지이다. 기존 QSCCⅡ가 121문항인 것에 비해 QSCCⅡ⁺는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김¹⁵⁾의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의한 소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에서 소음인으로 진단된 336명과 다른 체질로 진단된 422명을 대상으로 QSCCⅡ의 소음인 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나 문제점으로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2001년 장¹⁶⁾의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의한 태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에서 태음인으로 진단된 204명과 다른 체질로 진단된 554명을 대상으로 QSCCⅡ의 태음인 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나 문제점으로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2001년 나¹⁷⁾의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의한 소양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에서 소양인으로 진단된 218명과 다른 체질로 진단된 540명을 대상으로 QSCCⅡ의 소양인 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나 문제점으로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2001년 김¹³⁾의 '개정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Ⅱ(QSCCⅡ⁺)에 대한 임상적 고찰'에서 QSCCⅡ⁺의 재구성에 대한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QSCCⅡ 및 문항의 응답율을 비교 조사하였으나 문제점으로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의 동질성과 체질에서 한약물 등에 의한 무검증·3체질이 지적된다.

한편, QSCCⅡ 설문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신뢰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박²⁶⁾은 2002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인과 QSCCⅡ의 일치율이 51%를 지적하였다. 또한 김¹⁵⁾은 2000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의한 소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에서 QSCCⅡ의 새로운 소음인척도에 대하여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장¹⁶⁾은 2001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의한 태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에서

QSCCⅡ의 새로운 태음인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나¹⁷⁾는 2001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의한 소양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에서 QSCCⅡ의 새로운 소양인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설문문항에 대한 문제점으로 박²⁴⁾은 2000년 'QSCCⅡ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연구'에서 QSCCⅡ의 문항 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55문항이며, 세 체질간 차이있는 15문항으로 1차적 설문지로 먼저 선택될 수 있고, 두 체질간 차이있는 51문항으로 재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²⁷⁾은 2003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upgrade 연구(I)'에서 문항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57문항을 제시하고, 체질판단에 유의미한 문항으로 태양인 18문항·소양인 40문항·태음인 41문항·소음인 32문항이며, 태양인을 변별할 문항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판별방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박²⁵⁾은 2001년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체질진단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16문항을 선정한 뒤 의사나무결정나무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진단방법을 제시하였다. 박²⁶⁾은 2002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7문항을 수량화 방법에 의하여 Kappa의 값이 0.466이며, 68.2%의 진단정확률을 제시하였다.

넷째, 그 외에 논문으로 문제점을 정량화하지 못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언에서 지적했다. 문항의 문제점으로 태양인문항이 태양인에게 매력적인 문항이 없고, 소양인과 거의 중복된다. 그리고 A and B·A or B 형의 중복문항, 비정량화 문항(예, 똥똥한 편이다) 등이 선택할 때 모호함이 있다. 또한, 응답방식이 해당되는 것만 ○로 표시하므로 문항에 대하여 무응답과 부정응답을 구분할 수 없다. 또한, 체질척도의 선택에서 체질간 차이있는 문항이 선택되므로 원문정신에 위배된 문항이 채택되는 경우가 있었다.

V. 결 론

체질분류검사지(자기보고식)의 관련 논문 22편(1985년부터 2003년까지)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체질분류검사지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I 설문지는 총3편(13.6%)이며, 진단신뢰도에 관한 논문 1편·타당화에 관한 논문 1편·문항분석에 관한 논문 1편이다. QSCC는 총4편(18.2%)이며, 타당화에 관한 논문 2편·준거타당화에 관한 논문 2편이다. QSCC II는 총8편(36.7%)이며, 진단신뢰도에 관한 논문 1편·타당화에 관한 논문 2편·문항분석에 관한 논문 2편·표준화에 관한 논문 1편·설문지간 비교에 관한 논문 1편·간편화에 관한 논문 1편이다. QSCCIII는 총3편(13.6%)이며, 타당화에 관한 논문 1편·문항분석에 관한 논문 1편·설문지간 비교에 관한 논문 1편이다. QSCCII+는 총4편(18.2%)이며, 진단신뢰도에 관한 논문 3편·설문지간 비교에 관한 논문 1편이다.

2. 체질분류검사지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상자에서 크기문제 2편(9%)·집단간 성별 및 나이에 대한 동질성문제 13편(59%)이며, 체질에서 네 체질문제 20편(90.9%)·체질진단지표문제 17편(77.3%)이었다.

3.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QSCC II 설문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진단신뢰도에 관한 4편·설문문항에 관한 2편·판별방법에 관한 2편이 있었다. 그 외 태양인문항 문제·체질척도의 변별력 문제·중복문항 문제·비정량화 문항 문제 등이 있었다.

사상체질변증의 중요한 방법으로 정착된 체질분류검사지(자기보고식)는 과학적이며 통계적 방법으로 왜곡없이 분석되어야 하며, 향후 문항의 수정과 개정 또는 판별방법의 개선 등으로 발전적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재마. 격치고. 덕흥인쇄소. 서울. 1940.
2.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사상의학. 집문당. 서울.1997.
3. 중국연변조선민족의학연구소.조선민족사상의학. 여강출판사. 서울.1991.
4. 한동석. 동의수세보원주석. 성리회출판사. 서울.1967.
5. 홍순용, 이을호. 사상의학원론. 수문사. 서울. 1973.
6.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에 대한 소고. 대한한의학회지. 1985;6(1):40-47.
7.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 방법론연구(第一報, 第二報). 대한한의학회지. 1987;8(1): 139-60.
8.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3;5(1):61- 80.
9.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5;7(2):89- 100.
10.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II)의 표준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5;7(1): 187-246.
11. 이정찬,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II)에 대한 타당화 연구-각체질집단의 집단별 Profile분석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5;7(1):247-94.
12. 김영우, 김종원.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기존설문지를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151-84.
13. 김상복, 이준희, 박계수, 정용재, 이수경, 송일병. 개정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QSCC II+)에 대한 임상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3):15-22.
14. 김수범. 사상체질감별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 경희

- 대학교 대학원. 1989.
15. 김상복, 이수경,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의한 소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94-103.
 16. 장현록,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의한 태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45-50.
 17. 나대운.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의한 소양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8. 김달래.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4;6(1):89-94.
 19. 박은경, 박성식.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157-72.
 20. 이정찬,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준거타당화 연구-성격요인 검사 16PF와의 비교분석-. 사상의학회지. 1993;5(1):81-98.
 21. 조용태,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준거타당화 연구-성격요인 16PF, 성격유형MBTI와의 비교분석-. 사상의학회지. 1994;6(1):21-39.
 22. 노성호, 이의주, 홍석철,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조사의 타당화 방안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사상의학회지. 1996;8(2):239-56.
 23. 박성식, 박은경, 최재영.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의 일치도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 11(1):103-17.
 24. 박은경, 박성식. QSCCⅡ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78-93.
 25. 박은경, 박성식.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체질진단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 144-55.
 26. 박혜선, 주종천, 김주한, 김경요.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35-44.
 27. 김태연, 유정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upgrade 연구(I).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1):27-38.
 28. 이상규, 광창규,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upgrade 연구(II).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1):39-49.
 29. 김영우, 김종원. 설문지를 통한 사상체질의 임상적 분류방안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1):215-34.
 30. 김태균, 김종원. 새로운 사상체질설문지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 12(1):173-85.